



# 지난주에 알았으면 **노동**을 몇 가지 다음주에 알아야 할 몇 가지



자산배분/투자전략 김한진 hjkim@ktb.co.kr  
경제 채현기 hkchae@ktb.co.kr

연구원 홍록기 hrk9836@ktb.co.kr  
연구원 이재선 cindy0216@ktb.co.kr

## Preview > 다음주에 알아야 할 몇 가지 (10/16~20)

### > KOSPI 2,450~2,520pt: 테크실적 호조기반으로 강세장 지속

#### 반도체가 모든 것을 평정하는 장세

이번 주 코스피는 지난 7/25일 역사적 장중고점(2453.17)을 종가기준으로도 돌파하는 강세를 보임.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연은 여전히 반도체경기이고 기타 수출경기 호조도 이번 강세장의 조연으로 역할을 다해주고 있음. 북핵위험 등이 증시에 깔려있는 부담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워낙 출중한 주연의 행보를 막지는 못하는 상황. 특히 전일(10/12) 코스피는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IT의 낙수효과(spillover) 없이도 지수 사상최고치를 기록해 향후 순환매에 희망을 주는 모습이었음.

다음주에도 국내외증시는 테크실적 호조를 기반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랠리를 보인 지난 3월~5월초, 그리고 7월의 경우를 견주어 볼 때 하반기 반도체경기 기대가 높아진 이번 랠리는 11월까지 좀 더 이어질 전망. 다만 이번 4분기는 지난 분기실적 랠리와 비교할 때 삼성전자 고유실적에 대한 신뢰는 더 고조된 반면, 증시 주변환경 부담은 다소 커진 상황. 특히 연휴 기간 중 눌렸던 주가상승 압력이 너무 갑자기 표출되고 있어 코스피 20일 이격 105정도(지수환산 2500선)에서는 지수 숨 고르기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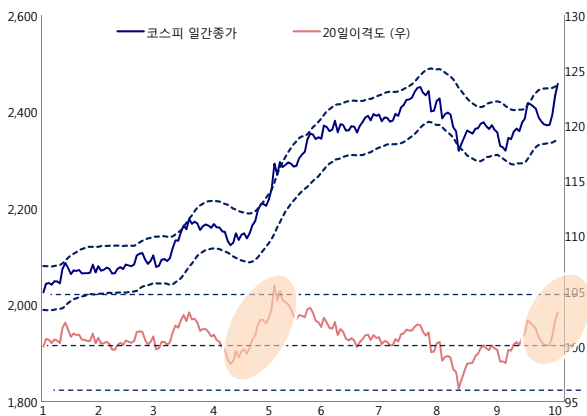
#### 금리 임계점 돌파 전까지 기업실적이 이끄는 장세

어닝시즌에 본격 진입하는 다음 주는 넷플릭스(16일)를 시작으로 한 주간을 열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17일) 금융주 실적에 관심이 쏠릴 전망. 금융주에서는 대체로 상업은행은 부진, 자산운용사와 IB(투자은행)는 양호한 실적의 대비가 예상됨. 이밖에 존슨앤존슨과 IBM(17일), GE와 P&G(20일) 등 글로벌 노출도가 큰 기업들의 실적공표가 예정. 국내에서는 LG화학(16일)을 필두로 우리은행, KB금융, 신한지주(18일), 하나금융지주(19일) 등 은행주 실적발표가 예정.

다음주 주목할 경제지표로는 중국, 유럽 물가지표(16~17일)와 미 9월 경기선행지수(19일) 및 중국 9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19일) 등이 있음. 금주 IMF의 세계경제전망 수정발표에 이어(올해와 '18년 세계경제 전망을 지난 7월 전망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음) 주요국 물가와 산업지표는 경기신뢰와 통화긴축이라는 양면성을 지님. 하지만 단기로(10월중) 통화긴축과 유동성위축은 다소 먼 재료이고, 경기와 기업실적은 당장 눈앞의 재료이므로 금리가 임계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글로벌 위험자산시장 전반의 투자심리가 양호할 전망.

한편 18일 개막되는 중국 19차 당대회는 전주 시작된 중전회의에 이어 인프라투자 확대와 중장기 성장을 마지노선을 지키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임. 19일 예정된 한국 통화정책회의는 금리동결이 유력하나 내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시장금리가 이를 선반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하지만 다음주에도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재료(금리, 유동성, 지정학적 위험)보다는 여전히 기업실적이라는 현실기반의 재료가 주식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임.

### 코스피와 20일 이격도 추이 ('17년, 일간)



Source: Bloomberg, KTB투자증권

### 삼성전자 주가흐름 ('17년, 일간)



Source: Bloomberg, KTB투자증권

Review > 지난주에 알았으면 좋았을 몇 가지 (10/10~12)

- ▶ 국내증시 동향
  - : KOSPI는 추석 장기연휴간 지속된 글로벌 증시 상승밸리 영향으로 상승, 특히 실적 개선기대감이 큰 Tech업종에 외국인 고강도 매수 압력이 집중되며 이를 연속 사상최고치 경신. 수급관점에서 그간 지속된 외국인 매도 VS 기관 매수 구도가 전환된 점이 특징적
- ▶ 글로벌 증시 동향
  - : 긍정적인 경제성장 전망으로 인해 글로벌 위험자산군에 대한 선호심리 강화. 미 연준이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피력. 또한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상향조정했으며, 일본 역시 '18년 성장전망치를 0.1%p 상향조정.
- ▶ KOSPI (+3.4%), KOSDAQ(+2.1%), 대형주(+3.9%), 중형주(+0.9%), 소형주(+0.4%)
- ▶ KOSPI 수급동향(억원): 외국인 +17,659 기관 -13,170 (금융투자 -6,489 투신 -1,070 연기금 +1,427 보험 -426) 개인 -3,113
- ▶ 증권(기관+274억/외국인+199), 하드웨어(기관-3,927억/외국인+3,785억), 제약/바이오(기관-316억/외국인+1,124억) 강세
- ▶ 디스플레이(기관-829억/외국인-189억), 유틸리티(기관-432억/외국인-298억), 운송(기관-183억/외국인-16억) 약세

업종별 수익률 Summary (12일 종가기준)

		← 내수민감						수출민감 →					
매크로 가격변수 노출 높음		주간	2주간	4주간		주간	2주간	4주간		주간	2주간	4주간	
		매크로 가격변수 노출 낮음		음식료	-0.7%	-0.7%	-2.8%	에너지	4.1%	4.1%	9.3%	자동차	1.6%
		철강/비철금속	0.9%	0.9%	1.2%	건설	2.3%	2.3%	1.7%	디스플레이	-3.1%	-3.1%	-9.8%
		보험	4.9%	4.9%	5.1%	유틸리티	-2.2%	-2.2%	-7.0%	조선	4.1%	4.1%	6.4%
		은행	2.6%	2.6%	3.8%	미디어	1.5%	1.5%	-0.4%	운송	-1.5%	-1.5%	-3.4%
		증권	7.1%	7.1%	2.8%	제약,바이오	4.6%	4.6%	4.9%	화학	-1.3%	-1.3%	-5.5%
		유통	0.6%	0.6%	-1.4%	생활용품	0.8%	0.8%	5.4%	하드웨어	6.7%	6.9%	7.5%
		통신	2.1%	2.1%	1.8%	소프트웨어	2.1%	0.7%	0.7%	반도체	5.9%	2.1%	11.9%

Source: FnGuide 스타일 지수구분, KTB투자증권

국내증시 스타일별 수익률 Summary (12일 종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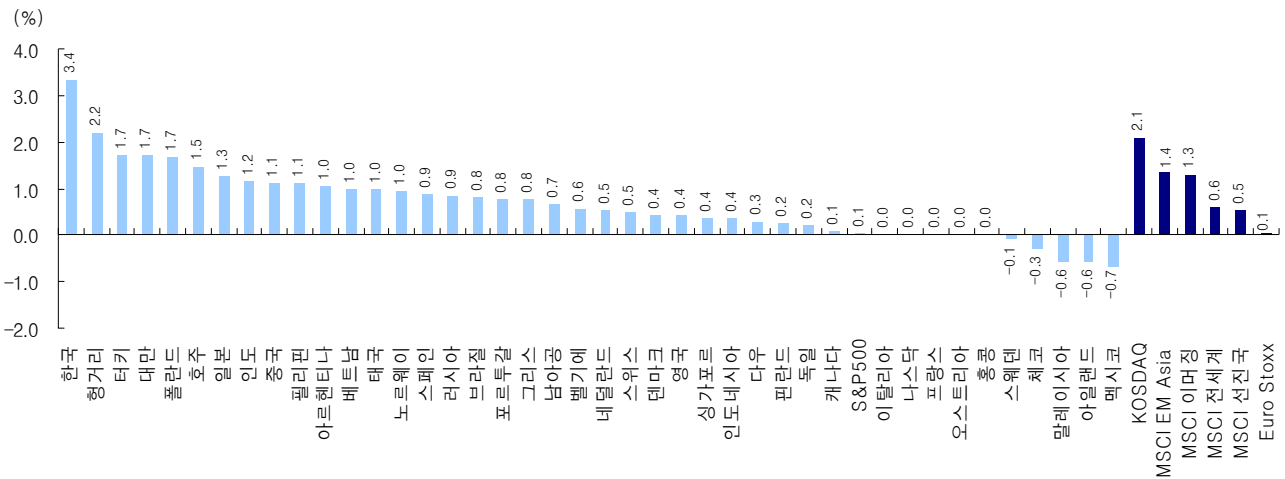
	가치			성장		
	주간	4주간	12주간	주간	4주간	12주간
대형	2.2%	2.6%	-2.1%	2.7%	3.6%	2.0%
중형	1.5%	-1.1%	-4.2%	1.4%	2.0%	-2.2%
소형	1.3%	-1.0%	-9.2%	0.4%	-3.1%	-4.2%

Source: FnGuide 스타일 지수구분, KTB투자증권

Review > 주간 글로벌 증시 동향 (1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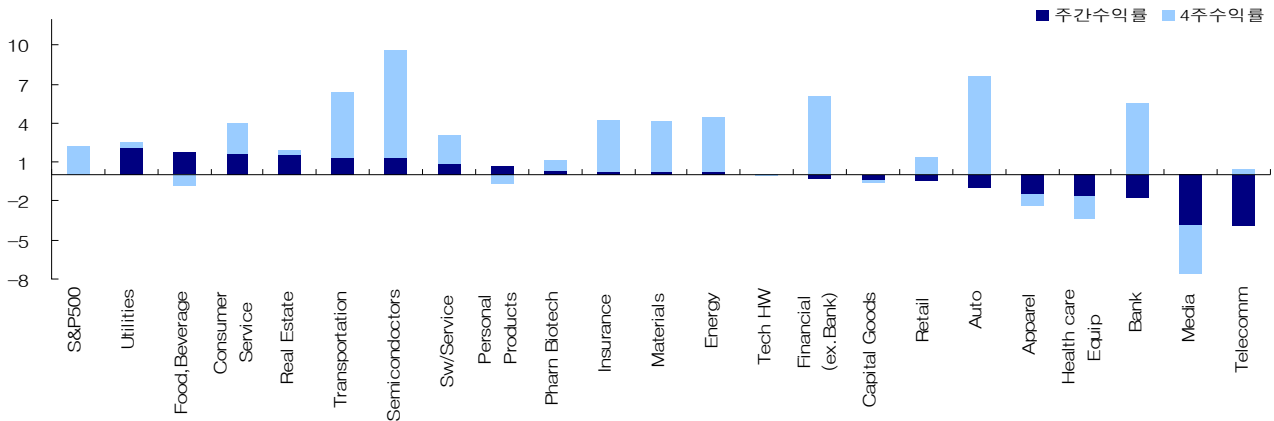
- S&P 500(+0.1%), 세재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유효가 여전한 가운데, 3Q 기업실적 기대감 및 미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강보합 마감, 3대 증시 모두 사상최고치 경신. S&P500 상장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약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강화. 미 연준이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피력
- Eurostoxx(+0.1%), 스페인 정치 불확실성 완화 및 독일 지표 호조에 강보합 마감.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 선언 절차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스페인 증시 중심으로 유럽 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 한편 8월 독일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6%를 기록, 예상치 +0.8%를 크게 상회함
- Nikkei(+1.3%), 아베노믹스 연장 기대감 및 긍정적인 경제성장 전망으로 인해 상승세 시현. 엔/달러 환율이 112엔대에서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닛케이는 20년만에 최고치 경신.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의 우세가 이어짐. 이에 아베노믹스 정책 기대감이 강화됨. 또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6%로 상향조정된 가운데, 일본의 '17년, '18년 성장전망치가 각각 0.2%p, 0.1%p씩 상향조정됨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
- 상해종합(+1.1%), 주초 지준을 인하 영향 및 의료산업 지원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심리 지속, 그러나 당대회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경제심리로 인해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 인민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에 적극적인 은행들에 대해 지준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추가 공급에 대한 기대감 강화. 또한 국무원이 의약과 의기기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및 바이오 섹터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짐

Review > 글로벌 증시 주간 수익률 (12일 증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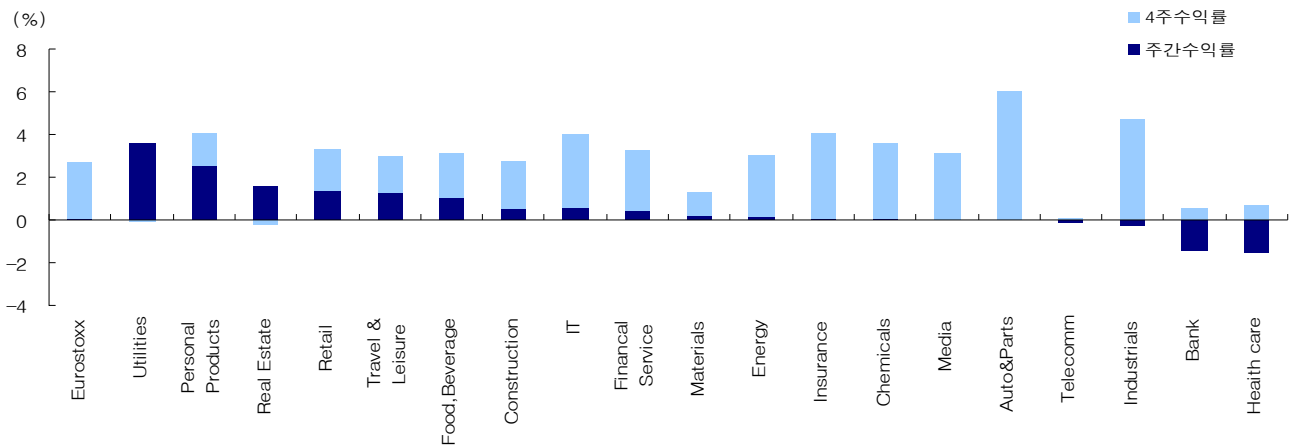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KTB투자증권

Review > S&P500 업종별 수익률 (12일 종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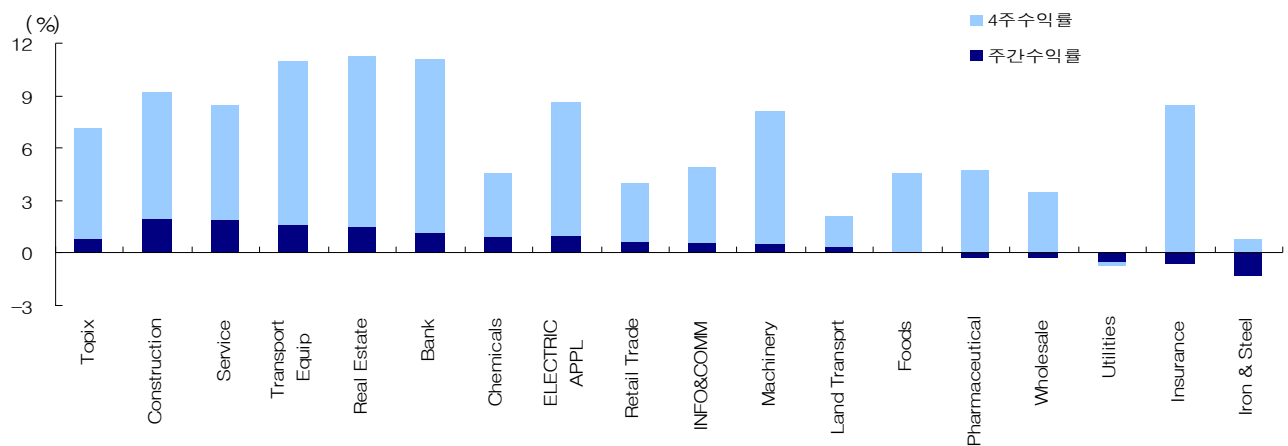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KTB투자증권

Review > Euro Stoxx 업종별 수익률 (12일 종가기준)



Source: Bloomberg, KTB투자증권

Review > Topix 업종별 수익률 (12일 종가기준)



Source: Bloomberg, KTB투자증권

업종별 주간 실적발표 일정

업종		
건설	미확정	한샘 3Q17 잠정실적 발표
유틸리티	2017-10-16	관세청 LNG, 석탄 수입 데이터
	2017-10-20	공론화위, 최종 권고안 정부 제출
화장품/소비재	2017-10-15	관세청 화장품 수출입 데이터 발표
음식료	2017-10-16	관세청 수출입 데이터
반도체/디스플레이	2017-10-17	Lam Research 실적 발표
	2017-10-18	ASML 실적 발표
	2017-10-19	TSMC 실적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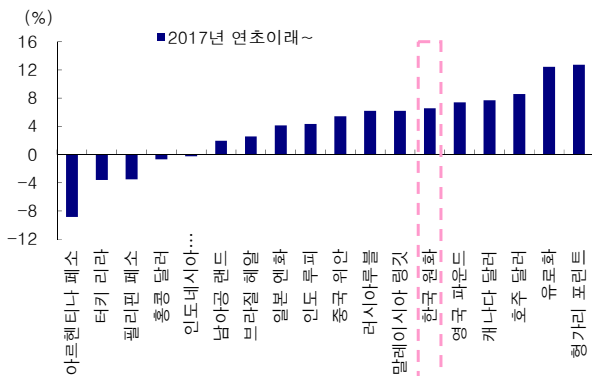
Source: KTB투자증권

Preview > 글로벌 환율 동향과 전망 (10/9~10/13)

달러, 유로화 강세+ 그간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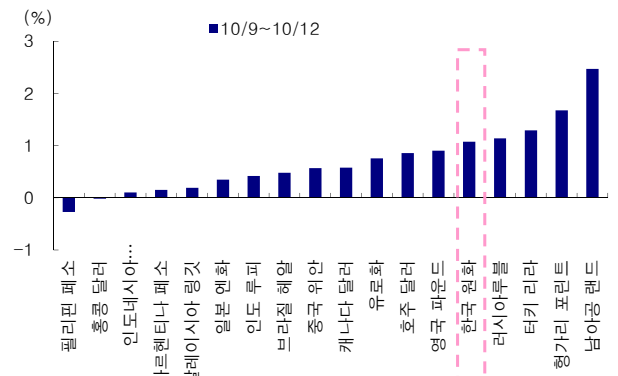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1,133~1,142원내에서 등락폭을 거듭. 추석연휴 마지막 거래일에는 1140원대에서 마감. 그간 우려되었던 연휴 기간 북한의 추가 도발이 부재한 가운데 연휴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매수에 따른 원화 매수세 유입, 1130원대로 하락. 다만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집중되면서 하락폭은 제한적. 대외적으로 ECB의 긴축 기대감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그간 상승 분을 일부 반납
- 엔/달러 환율은 112엔내 변동폭을 확대하는 모습. 금주 엔/달러 환율은 상/하단 재료가 혼조되며 박스권 장세연출. 추석 연휴 전 112엔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엔/달러 환율은 자국 내 경기지표 호조 및 미 연준 인사들의 12월 추가 금리 인상 시그널에 따라 한때 113엔 안착. 그러나 북한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전후로 재개될 수 있는 북한 risk에 따른 경계심리로 112엔대로 재차 반락. 차후 엔/달러 환율은 22일 예정되어 있는 일본 총선에 영향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현재 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이 35%을 기록, 2위인 고이케의 희망당을 앞서는 중.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0%로 여전히 견고한 수준
- 달러/유로 환율은 1.17~1.18 달러내외에서 점진적인 상승세 시현. 독일 산업생산 서프라이즈 등 경제지표 호조와 스페인 정세 개선 기대감에 유로화 매수세 유입. 파운드/달러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과 영국 노동비용 급증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전주의 주간 낙폭을 대부분 만회, 전주 대비 0.9% 상승한 1.32달러 마감
- 위안/달러 환율은 6.58~6.62위안 내에서 점진적인 하락세 시현. 인민은행이 그간 달러 강세를 반영해 기준환율을 절상 고시한 가운데, 시장 또한 단기 낙폭 인식에 따른 위안화 저가 매수세 재개. 오는 18일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정부는 환율 안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절상률(2017년 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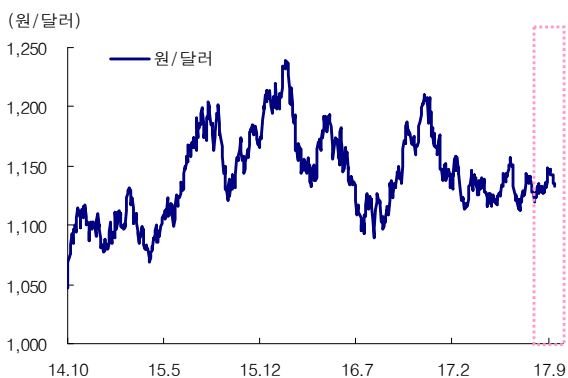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KTB투자증권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절상률(2017년 주간 기준)



Source: Bloomberg, KTB투자증권

원/달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매수에 따른 원화 매수세 유입으로 1130원대 안착



Source: Bloomberg, KTB투자증권

달러화는 연준의 9월 FOMC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부진에 우려를 표한 점등을 반영해 약세 흐름



Source: Bloomberg, KTB투자증권

주간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코멘트

날짜	국가	경제지표	단위	발표치	예상치	이전치	Comment
10월 9일	중국	9월 외환보유고	조달러	3.1	3.100	3.915	중국 외환보유고는 3조1천억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 차후 달러 강세가 예상되나 점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외환보유고 수준은 양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판단
10월 12일	유로존	7월 산업생산	%, y/y	3.8	2.6	3.2	독일의 8월 산업생산 호조를 기록하였으나 프랑스의 산업생산이 감소하며 상승폭은 제한적. 차후 유로존 산업생산은 성장속도가 상반기 대비 둔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여전히 펀드멘탈의 한 축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
10월 13일	미국	9월 CPI	%, y/y	--	2.3	1.9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 엘런 미 연준 의장은 9월 FOMC 회의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된 데 대하여 우려를 피력한 바
		9월 수출/입	%, y/y	--	10.0/14.7	5.6/13.5	9월 내 위안화 강세-달러 약세 구도가 점차 약화된 점을 감안하였을 때 8
10월 15일	중국	9월 무역수지	억달러	--	419.9	419.2	월처럼 수출액이 급감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9월 M2 통화공급	%	--	8.9	8.9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에 일부 대출에 대한 선별적
10월 16일	중국	9월 사회용자총액	억달러	--	1572.7	1480.0	지준을 인하 정책을 발표,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
		9월 CPI/PPI	%, y/y	--	1.6/6.3	1.8/6.3	전월 대비 동일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10월 국경절 연휴 및 원자재 가격을 감안할 시 10월 CPI/PPI는 소폭 반등 전망
10월 17일	유로존	9월 CPI	%, y/y	--	--	1.5	양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ECB가 목표하는 물가 달성률은 2%
	미국	10월 NAHB 주택시장지수	Index	--	63	64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되며 부동산 시장의 견고한 성장세가 재확인 될 것으로
10월 18일	중국	9월 주택착공/허가건수	천호	--	1180/1230	1170/1272	로 전망
		19차 당대회	--	--	--	--	시진핑의 집권 안정화를 재확인하는 이벤트. 당대회 주요 변수는 새 지도부의 정책 지향점. 시진핑의 개혁 정책이 금융 긴축보다는 인프라 투자 등 성장 개혁에 더욱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까지 중국 경기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10월 19일	한국	10월 BOK 통화정책회의	%	--	1.25	1.25	미 연준의 10월 이후 보유자산 축소+12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승하며 외국인 자금 엑소더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은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됨. 한은은 빠르면 18년 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경상수지가 여전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점, 수출 등 경기 회복 시그널이 일정부분 포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 한편 IMF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0%로 상향조정
	중국	3Q GDP(최종)	%, y/y	--	6.8	6.9	내수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 규제에 따른 생산 둔화 등에 공급 측면의 감축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소폭 둔화 전망.
		9월 산업생산/소매판매	%, y/y	--	6.4	6.0	PMI 지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중국 제조업 경기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 다만 상승폭 자체는 정부 규제에 의해 높지 않을 것
		9월 고정자산투자	%, y/y, YTD	--	7.7	7.8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